

慶

2005년도

# 제19회 책의 날 기념식

일시 : 2005년 10월 7일 11: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지난 10월 7일 세종문화 회관에서 출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책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출판강국임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 ‘연간 1억만 부 넘는 출판강국’ 확인

박맹호 출협 회장 ‘변하는 시대와 독자에 출판계 부응해야’  
기념식 성대하게 열려... (주)두산동아 · (주)한국몬테소리 대통령상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책 발간 부수는 일억 895만 부로 집계됐다. 세계 7대 출판강국다운 면모를 보인 셈이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달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9회 ‘책의 날’ 행사에서 있는 ‘한국 출판 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에서 밝혀졌다.

이날 ‘한국 출판의 국제적 위상’ ‘출판 산업 지원 현황’ ‘출판 산업 발전 위한 과제와 건의’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 콘텐츠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국내 출판사 수는 이만 2,498개사, 신간 발행 종수 삼만 5,000여 종, 연간 발행 부수는 1억 8백 95만 여부 로 집계됐다. 주목할 것은 양질의 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도 우수 도서 선정·보급 지원사업 예산이 삼십억 원에서 무려 팔십억 원 으로 확대된 점이다. 이는 170퍼센트 증액된 수치다.

이날 보고에선 또 국제도서전을 통한 수출 실적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강조됐으며, 향후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출판 산업 진흥 기반 조성, 출판유통 활성화, 남북 출판인 교류를 통한 통일 대비책 강구 및 지원 등도 제기됐다.

### 제19회 책의 날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서 개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책의 날 기념식에선 박맹호 (사)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든 출판계와 출판인은 변화를 원하는 대중과 독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출판이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의 수준 높은 출판문화를 알리는 다시없을 기회”라고 정의한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민국 행사가 한국 출판계에 활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책의 날’은 특히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민국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박 회장은 “2005프랑크푸르트주민국 행사는 우리문화의 저력과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저작권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서의 계기 마련과 한국출판의 위상 제고와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에 의의가 있다”며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 ‘책의 날’…《고려대장경》 탄생한 날, 1987년 처음 시행

‘책의 날’은 본래 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 이하 출협)가 창립 40돌을 맞았던 1987년 생겨났다. 그해 4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출협은 기념사업의 하나로 책의 소중함을 느끼고 독서하는 풍토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이 날을 책의 날로 정하는 데는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그중 《고려대장경》이 완성된 날로 하자는 데 전문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계절적으로도 독서주간이기도 하고, 한글날과도 가까운 날이어서 더없이 적합하다는 결정이다.

이에 출협은 책의 날과 관련한 기념행사로 기념비를 제작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기증했고 특별행사로 ‘한국출판문화 1300년 전시회’를 개최했다. 우리 출판문화의 찬란한 전통을 일반에게 공개한 이 전시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비롯한 1,000여종의 고서가 전시됐다.

이후 책의 날 기념식은 매년 거행되고 있는데 한국출판공로상·관련업계 출판유공자 표창 등의 시상도 이날 함께 치러지고 있다.

### 출판 유공자들에게 표창 수여, ‘TV, 책을 말하다’에 감사패 증정

올해 기념식에서는 한국몬테소리 김석규 대표와 두산동아 최태경 대표가 아동도서의 질적 향상과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서문문화사 이광석 대표와 도서출판 석정 황의민 대표, 홍익출판사 이승용 대표는 한국 출판문화창달과 국내 출판물의 해외 시장 개척에 힘쓴 점이 인정돼 국무총리

### 책의 날 역대 대통령표창자 명단

| 성명  | 소속        | 지위 | 수상년도            |
|-----|-----------|----|-----------------|
| 안재관 | 신영출판사     | 대표 | 1996년 제10회 책의 날 |
| 윤청광 | 동국출판사     | 대표 | 1996년 제10회 책의 날 |
| 오세경 | 법전출판사     | 대표 | 1997년 제11회 책의 날 |
| 정인철 | (주)한국프리벨  | 대표 | 1997년 제11회 책의 날 |
| 황수원 | 갑인출판사     | 대표 | 1997년 제11회 책의 날 |
| 김상욱 | 하서출판사     | 대표 | 1997년 제11회 책의 날 |
| 김홍석 | (주)청문각    | 대표 | 1998년 제12회 책의 날 |
| 이문철 | 영진출판사     | 대표 | 1998년 제12회 책의 날 |
| 장하린 | (주)종로서적   | 대표 | 1998년 제12회 책의 날 |
| 백좌현 | 갑을출판사     | 대표 | 1999년 제13회 책의 날 |
| 이종춘 | 성안당       | 대표 | 1999년 제13회 책의 날 |
| 주정희 | 자유아카데미    | 대표 | 1999년 제13회 책의 날 |
| 김현표 | 미진사       | 대표 | 2000년 제14회 책의 날 |
| 최선호 | 세계사       | 대표 | 2000년 제14회 책의 날 |
| 김병준 | (주)지경사    | 대표 | 2001년 제15회 책의 날 |
| 백석기 | (주)생각나라   | 대표 | 2001년 제15회 책의 날 |
| 백종만 | 효성출판사     | 대표 | 2002년 제16회 책의 날 |
| 유광종 | (주)한국이공학사 | 대표 | 2002년 제16회 책의 날 |
| 이석호 | (주)아가월드   | 대표 | 2003년 제17회 책의 날 |
| 이주목 | 대광서림      | 대표 | 2003년 제17회 책의 날 |
| 강희일 | 다산출판사     | 대표 | 2004년 제18회 책의 날 |
| 조근태 | 현암사       | 대표 | 2004년 제18회 책의 날 |
| 장평순 | (주)교원     | 대표 | 2004년 제18회 책의 날 |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 홍성사 정애주 대표 등 20명에 대한 문광부장관상, 그리고 기획·편집부문, 관리부문, 영업부문별로 나뉘어진 제 25회 한국출판공로상, 인쇄계, 제본업계, 서점계 등 출판 관련업계에서 출판문화 향상에 공을 기린 사람들에 대한 출판 유공자상 등의 시상이 있었다. 또 장정일, 김미화가 진행하는 KBS 1TV ‘TV, 책을 말하다’ (연출 김학수) 제작팀은 전국민 책읽기 운동과 토론하는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독서생활화와 출판문화발전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과 박맹호 출협 회장을 비롯한 출판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취재·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